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	2023년 8월 9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문화정책과	담 당 자	• 문화정책팀장 • 담당자	최재필 ☎440-4011 강선미 ☎440-401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스카우트 대원, 인천상륙작전 영웅을 만나다
 - 기념관 찾은 영국·벨기에 대원 ... 국제평화·자유수호 의미 되새겨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에 체류 중인 영국과 벨기에 스카우트 대원 중 일부가 9일 오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방문해 국제연합(UN) 참전 용사의 희생에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.

기념관을 찾은 60여 명의 대원들은 자유 수호의 탑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후 해설사로부터 참전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킨 자유 수호의 과정을 들었다.

특히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낸 약 5만 6,000여 명의 선조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했다.

또한 대원들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. 시는 오는 9월 15일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

기념할 예정이다.

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“한국전쟁 참전국의 후손들이 이곳 인천상륙작전에서 만나 감회가 새롭다”면서 “이번 방문을 통해 대원 개개인 모두가 국제평화와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또 “인천시가 마련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”고 덧붙였다.

한편 인천상륙작전 방문 이후 대원들은 시립박물관으로 이동해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역사를 관람하고, ‘시간을 달리는 인천’을 주제로 한 실감 체험으로 새만금 야영장에서 다 하지 못한 문화교류의 아쉬움을 달랬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미디어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